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5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데이터산업과	담당자	•블록체인팀장 구병길 ☎440-3271 •담당자 윤영두 ☎440-327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디지털 경제특구 선도 위해 두바이와 협력 모색**  
**- UAE 산업·무역거래 중심 DMCC 의장단 만나 블록체인 산업 협력방안 논의 -**

블록체인 산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두바이와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협력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무역거래의 중심 정부기관으로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 아흐메드 빈 술래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0명과 만나 디지털 경제·블록체인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

DMCC는 2002년 두바이 주메이라 에이크 타워 지구에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로 금융·금·다이아몬드·에너지·커피 등 상품 무역 거래의 중심지다. 현재 180개 국가의 2만 1,000여 개 기업, 6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DMCC 크립토 센터(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역할로 2022년 신규 등록된 기업 655곳 중 약 16%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아흐메드 빈 술래얌 DMCC 의장은 디지털 경제 혁신도시 ‘인천 메타노믹스’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적 육성과 DMCC 자유구역 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공 유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도 DMCC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 기업 집적화, 제도개선 등 관련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DMCC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세계 147개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국제경제단체 등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만큼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4개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블록체인 칼리지 운영(인재양성), ▲블록체인 써밋·포럼 등 다양한 사업확장을 통해 지역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DMCC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상호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천지역이 기업과 전문인력이 모여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